

누 리 에 빛 나 는 태 양 의 모 습

7월이 왔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모든것이 땅각속에 묻힌다고 하지만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겨레의 사무치는 그리움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 강렬해진다. 하기에 겨레의 마음과 마음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끝없이 달린다.

금빛 찬란한 대원수님이 빛나는 웅장한 돌대문을 지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경건히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는 사람들속에는 노동자, 농민, 과학자, 청년학생, 인민군장병들도 있고 지역만리에서 온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도 있다. 그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격정을 터쳤다.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사상과 령도에서도, 인품과 덕망에서도 온 겨레와 인류의 흠모를 한몸에 받고계시는 위대한 태양이시다.》

위대한 태양! 동서고금에 후세에 이름을 남긴 위인, 명인들이 적지 않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처럼 태양으로 높이 떠받들린 절충한 위인은 일찍이 없었다.

돌이켜 보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태양으로 이 땅에 오신것은 력사의 대경사, 민족의 대행운이었다.

...어둡새벽 김보현할아버님께서는 만경봉으로 오르시었다. 이미 무저놓았던 나무단을 저내려오시려는것이였다. 사위는 아직 어둠속에 잠겨있었다. 산중턱에 거의 이르시었을때 갑자기 앞이 환해져서 살펴보니 만경봉우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나오고있었다. 할아버님께서 그쪽으로 걸



금 수 산 태 양 궁 전 광 장 에 금 이 지 는 다 합 없 는 경 모 의 대 하

음을 다루쳐 났다란 공지에 이르니 금방석위에 툼툼한 옥동자가 앉아 만경대를 굽어보는것이였다. 하늘이 내려준 귀인이심이 분명했다. ... 이것은 김보현할아버님께서 구신 꿈이였다. 그로부터 일마후 보조개를 퍼우시며 밝게 웃으시는 어르신 중손자분을 안아보시며

김씨녀사께서는 이렇게 탄성을 터치시었다. 《꼭 해님 같구나!》 그대부터 만경대일가분들은 물론 마을사람들도 수령님을 《해님》이라고 불렀다. 도 서 《선 군 태 양 김정일장군》(1)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시며 설레

이는 밀영에 홀날리는 눈송이들이 밀영의 귀틀집창가에 소리없이 내려앉더니 신기하게도 하늘에 붉은 노을을 펼쳐놓았다. 찬란한 광채가 귀틀집방안을 환히 비치고 붉은 기운이 백두산밀영에 가열렬히 숭배하고 따랐다는 것은 그들의 존함을 날 일자와 이를 성자, 바를 정자와 날

채광으로 차고넘치였다.》라고 적여져있다. 누군가 말하기를 위인은 인민의 마음속에서 먼저 추대된다고 하였다. 일찍부터 우리 겨레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얼마나 열렬히 숭배하고 따랐다는 것은 그들의 존함을 날 일자와 이를 성자, 바를 정자와 날

일자를 써서 태양으로 칭송한 사실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인민의 진실한 감정은 절대로 지어낼수 없다.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애국자, 회세의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경모의 정은 하늘에 닿고있다. 태양의 성지에 서고보니 대원수님들의 인자하신 모습이 더욱 사무치게 어려온다고 하면서 김정숙평양직공장의 정철호는 《오늘 우리 조국이 지니고있는 높은

존엄과 우리 인민이 누리고 있는 값높은 삶은 그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존함과 결부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정녕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지니신 천출위인상과 쌓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이야기뿐이다.

어찌 그들뿐이라.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해외동포들도 비범한 예지와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 탁월한 령도로 민족의 분열을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한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전진하는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주시는 대원수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눈시울을 적신다. 폭절많은 인생행로를 걸어온 얼마나 많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통일태양의 품속에서 두번 다시 태어나 애국애족의 값높은 삶을 빛내여왔던가.

하기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꽃들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을 모시고 그분들을 우러러 피어났고 가장 진귀한 선물들도 그분들을 흠모하는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의 마음을 안고 조선으로 향하였다. 피줄과 언어는 달라도 위인을 흠모하고 따르는 인류의 마음에는 국경이 없다.

태양은 영원함의 상징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겨레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7월의 하늘아래서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추억속에 터치는 겨레와 인류의 긍지높은 고백이다.

본사기자 홍 범 식

통일된 강산에 천만년 길이 모시리

7월을 맞이한 이 땅에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함께 겨레의 념원이 담겨진 노래가 뜨겁게 울려 퍼지고있다.

삼천리 내 조국에 해빛은 찬란하고 행복의 노래 소리 넘쳐 흐르네 통일된 강산에서 인민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천만년 살아가리

통일된 조국땅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높이 모시고 천만년 살아가려는것은 우리 겨레의 절절한 념원이며 의지였다.

장백의 험한 산발 눈보라 헤치며 잃었던 나라를 총대로 찾아주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이다.

그이께 있어서 조국통일은 필생의 위업이었고 한생의 념원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사의 중임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겨레에게 하루빨리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었다. 누구보다 겨레를 사랑하시고 조국통일을 절절히 념원하신 수령님께서서 분렬의 비극을 가시기 위해 지새우신 밤, 걸으신 길은 그 얼마이던가.

온 겨레와 인류의 다함없는 축원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은 탄성일에도 오늘 한가지 나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통일된 조국에서 다

같이 행복을 누리려는 겨레의 념원을 풀어주지 못한것이라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공동의 숙원인 동시에 민족앞에 다진 나의 맹세이기도 하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수령님이시였다.

조국이 통일되면 자신께서는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생의 전기간 친히 보아주고 비준해주시는 통일문건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심장의 마지막박동도 겨레를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시었다.

정녕 어버이수령님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하기에 온 겨레는 오늘도 통일된 강산에서 대를 이

어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천만년 살아가리라고 절절히 노래부르고있는것이다.

겨레의 이 념원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계시어 반드시 실현되고야말것이다.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품모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이 하늘아래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며 통일된 강산에서 인민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모시고 천만년 살아가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경

은 나라 강산에 그리움의 대하가 끝없이 넘쳐흐르는 7월이다. 드넓은 협동농장마다 김매기로 흥겨웁고 사회주의 문명국의 위용떨치며 일떠선 창조물들에서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차고넘친다. 조국의 모습이 더욱 풍요하게 단장되고 인민들의 기쁨 나날이 커갈수록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뜨겁게 샘솟는 소원이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 가슴벅찬 현실을 보시였으면!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의 념원이 실현되여가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고틱을 함께 나누신 어버이수령님께 있어서 언제나 인민은 자신의 스승이였다. 수령님께서는 로동자

들을 만나시면 그들의 기쁨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농민들을 만나시면 그들과 마주앉아 농사이야기도 나누시였으며 평범한 가정을 찾으시여서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부엌의 쌀독과 찬장부터 열어보시였다. 로인들에게는 허물없는 친구가 되시고 학생소년들에게는 다정한 학부형이 되시며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로선으로, 정책으로 집대성하고 인민을 이끌어 세세년년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수령님이시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할수록 수령님의 생전의 념원을 이 땅우에 현실로 활짝 꽃피우시려 헌신의 강행군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가 가슴뜨겁게 어려온다. 토지정리된 드넓은 논들과 물고기떼 옥실거리는 양어못앞에

서도, 하나같이 잘린 앞그루작물들을 보시면서도 언제나 인민을 생각하신 위대한 장군님. 북방의 철의 기지로부터 양떼호르는 황금산의 언덕을 넘어 배고동소리 울리는 어장을 지나 먼바다 심마월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곳곳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로고가 깃들여있다. 불보다 더 뜨거운 념원

을 안고계시였기에 그이께서는 수천리 강행군길도 웃으며 헤쳐가시었고 구운 감자 몇알로 끼니를 에우시면서도 언제나 행복의 미소를 짓곤 하시였다.

인민행렬자의 마지막기적소리를 울려가신 가슴치는 12월의 그날에도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수령님께서 맡기셨던 인민이 자리잡고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어린 이 땅을 오늘에 이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행복의 만년터전으로 더욱 아름답게 가꿔가신다.

과학자들과 학생소년들에게 안겨줄 희한한 새 거리와 소년단야영소를 일떠세워주시는 그날에도, 호숫한 물고기대풍을 보시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아하시였겠는가 그리도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오늘 공화국의 날과 날들은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의 시간으로 흘러가고있다. 통라인민유원지의 웃음꽃도, 미림승마구락부의 말발굽소리도, 마식령스키장의 스키바람도 절세위인들의 유혼을 꽃피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이 땅우에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아질수록 절세위인들의 념원이 비친 강성번영의 새봄은 더욱더 앞당겨질것이다.

본사기자 최 대 성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문수물놀이장



룡라인민유원지



창전거리